



장마철 채소·과일값 또 '들썩'...서민 가계 부담 가중

시금치·배 가격 평년비 각 86%·95% 급등
폭염·태풍 재해 우려...오름세 지속 불가피

여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본격적인 장마철이 겹치면서 채소·과일류 등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이 내습할 경우 농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지역 적상추 소매 가격은 100g에 1천280원으로 일주일 만에 28.5% 올랐다. 이는 1개월 전 989원과 비교하면 29.4% 상승한 가격이다.

적상추 소매 가격은 100g에 1천563원으로 일주일 전(1천193원)보다 31% 급등했다.

이들 채소류의 가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얼갈이배추 1kg의 소매 가격은 4천123원으로 일주일 전 3천300원보다 24.9%(823원), 배추 1kg은 같은 기간 3천503원

에서 4천493원으로 28.2%(990원) 올랐다.

당근 1kg은 일주일 전 6천238원에서 6천588원으로 4.7%(350원) 상승했다. 시금치 소매 가격은 일주일 새 100g에 938원에서 1천543원으로 64.4%(605원)나 치솟았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얼갈이배추, 당근, 시금치 등의 가격은 평년에 비해 각각 63%, 67%, 88% 가량 크게 뛰었다.

일부 과일류 가격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광주지역 사과 소매 가격(10개)은 3만6천5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5% 올랐다. 1개월 전에 비해 9.3% 상승했고, 평년 가격 대비 31% 높은 수준이다.

배 가격(10개) 역시 7만7천원으로 일주일 사이 2% 올랐다. 1개월 전보다 21%, 평년 대비 94.8%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향후 가격 전망도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마가 끝난 이후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재해가 뒤따를 경우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

이 평년보다 5%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배추는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에도 여름철 폭염·폭우에, 9월 태풍 피해까지 겹쳐 배추 가격이 폭등하는 등 매년 여름철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할당 관세를 확대하고 공동영농모델을 확산시키는 등 단기·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농식품 분야 농수산물 할인 지원 등에 하반기 5조6천

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할당관세 1천600억원을 적용하며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해 사과는 올해 6만t에서 2030년 15만t으로, 배는 같은 기간 4만5천t에서 6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태호기자



먹구름 덮인 광주 도심. 오락가락 장맛비 속에 연일 짙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남구 사직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이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져 내릴 듯한 먹구름으로 덮여 있다. /김애리기자

'전남권 의대 설립' 갈등 조장 발언 자제 촉구

도 "일부 지역서 사실과 다른 일방 주장 계속" 우려 표명
"정부 추천 요청에 이행 않는 건 직무유기...한 목소리 내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전남도가 동부권 등 일부 지역에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에 대해 갈등 조장 발언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 반복되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과 관련, 전남도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립의대가 설립됐던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가 '법적 권한 없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는 "전남도 공모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전남도에서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면 도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전남도 공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공모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과 관련, 전남도는 "공모 방식은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객관

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요청에 따라 단일 대학을 신속하게 선정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 방식이 최적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경북도 사례의 경우 현재 전남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북도는 애초 2개 대학의 성격이 달라 대학 특성에 맞게 두 트랙으로 안동대는 일반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의대)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재정기자

오락가락 비... '뽕통더위' 지속

광주·전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번 주 광주·전남은 30도를 웃도는 최고기온에 오락가락하는 장맛비의 영향으로 '뽕통더위'가 이어지겠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 화순·구례·곡성·완도·장흥이 30도로 가장 덥겠으며, 나머지 지역은 28-29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9일 최고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수준(28-30도)이나, 광주·나주·장성·담양·영광·함평·영암·신안·순천·고흥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확산될 전망이다. 10-12일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비는 내리고 그치

길 반복하겠다. 8일 구례·영광·함평·담양 등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9일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8일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9일 이른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하며, 이 기간 광주·전남 최고기온은 평년(26-29도) 이상으로 예보됐다. /장은정기자

Today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갈등'	6면
불혹의 호랑이 최형우 '별종의별'	16면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16면

잇-다 : 콘텐츠 IP

Connect : Content IP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

2024. 7. 18 - 21

코엑스 Hall A&B1